

산사에서 부친 편지

역대 큰스님들이 수행 중에 주고받은 130여 편의 주옥같은 삶의 화두들!

이 책은 통도사 극락선원의 선원장 명정 스님이 본인의 스승이었던 경봉 스님이 남긴 유품 중 50여 명의 고승들이 한자로 쓴 130여 통의 편지를 현대어로 옮긴 것이다. 17살에 출가한 이후 43년 동안이나 경봉 스님을 스승으로 모셨던 명정 스님은 이 책을 통해 주옥같은 화두가 담긴 편지들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에 실린 편지들 속에는 경봉, 경허, 성철, 한용운, 효봉, 정담 스님 등 우리나라 큰스님들이 주고받은 선문답이 그대로 수록되어 있어 독자들은 불가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의 생생한 선문답의 현장을 엿볼 수 있다.

명정스님 옮김, 정성욱 역음/신국판/331쪽/13,500원
노마드북스

부처님이 들려주는 108가지 이야기

거부하는 용기를 가져라.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라. 누구에게나 친절하라. 즐거움이 있으면 괴로움도 있다. 망상을 떨쳐 버려라. 참다운 자신을 발견하라. 자신에게 더 엄하라. 자기가 주인공임을 잊지 말라. 남을 생각하고 인정하라 등 108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았다.

석가모니

이 책 <석가모니>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를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화로 꾸민 것입니다. 이 책을 읽고 위대한 스승이신 부처님의 일생과 가르침을 통해, 현재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고 잡히고 흠바라게 사는 방법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성 그림 이병기/4×6배변형판/320쪽/9,600원
글 양태석 그림 이병기/4×6배변형판/255쪽/6,000원
도서출판 능인

밀리언셀러 <화>의 저자 틱낫한 스님의 2006년 신작

기도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지키는 힘

기도는 종교의 전유물이 아니다. 기도는 우주가 인간에게 선사하는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선물이다.

틱낫한 지음/김은희 옮김/9,000원

금강경과 마음공부

생활속에서 인류 정신사의 최고 정점인 금강경을 만나는 시간!
삶과 인생에 대한 의문을 가슴이 뻥 풀리도록 명쾌하게 풀어주는 깊이 깊은 지혜!

성지 순례 길에 담아 온 아름다운 울림 러 사진까지 한권에 담았습니다.

법상 글 사진/신국판(양장)/600쪽/25,000원 **무한**

부처님 오신날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본 연합광고의 서적은 불교서적 총판 운주사, 전국 불교서점, 온라인서점 예시이문닷컴 www.yesiamun.com (02-737-0695) 및 일반대형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1가 51번지
전화 02)3672-7181~5
팩스 02)3672-7186 / 02)3672-7188

마음비움에 대한 사색

마음을 비우지 않고 채움이란 없다.

한국불교에 보내는 쓴소리, 『마음비움에 대한 사색』. 저자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생각을 90여 편의 칼럼으로 정리한 삶의 흔적이자 미래를 위한 기록이다.

이 책은 저자가 그동안 신문이나 잡지 등에 발표한 칼럼을 수록한 것으로, 한국불교의 모든 출가자에게 보내는 쓴소리를 담고 있다. 또한 재가자와 일반인에게는 수행에 필요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여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가져다준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던지는 메시지다.

마성지음/신국판/365쪽/12,000원
민족사

행복을 찾아주는 붓다의 메시지

이책의 저자는 경전 읽는 일을 꾸준하게 해온 학자 보살로서, 미처 그것을 읽지 못하는 대중들에게 보석 같은 부처님의 말씀 한 마디 한마디를 들려주고, 거기에 절실한 해석의 턱담까지 곁들여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한장 한장 읽어가면서, 이 책의 지언이가, 달도 별도 가로등도 없는 캄캄한 밤의 울퉁불퉁한 골목길을 앞장서서 가면서, 초롱불을 비추주며 행복이라는 집으로 안내하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당신이 이 책을 읽으신다면 저보다 훨씬 더 좋은 말로 이 책의 내용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마령 지음/4+6판/232쪽/7,000원
불광출판부

영혼의 키를 키우려 '눈의 왕국'으로 떠난 소년

삶의 진리는 '자비와 연민의 실천'에 있다는 티베트 불교의 가르침을 담은 아름다운 이야기

신에게는 가깝지만 속세와는 멀리 떨어진 '눈의 왕국'. 그곳에 도착한 부탄의 평범한 소년 테첸은 스승의 가르침과 명상을 통해 삶의 궁극적 비밀을 깨닫게 된다.

마티외 리카르 지음, 권명희 옮김 | 152쪽 | 9,000원
www.isamto.com **샘터**

마음속 부처를 찾아 떠나는 단 한 번의 용기 있는 여행

속세의 인연을 버리고 산문에 든 우리 시대 대표 스님들의 인생 사연과 고된 구도의 여정 끝에 얻는 삶의 지혜를 풀어낸다.

우리 시대 고승 18인의 출가기
만공 스님, 자종 스님, 상수 스님, 월서 스님, 현해 스님, 일민 스님, 운산 스님, 원정 스님, 지선 스님, 정화 스님, 해자 스님, 효림 스님, 종림 스님, 원담 스님, 종희 스님, 본각 스님, 박연 스님, 혜조 스님
유용오 역음 | 240쪽 | 9,000원

www.isamto.com **샘터**

구법

신의 권유를 좇아서

"스님, 인생에서 가장 다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조주 선사가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다.
"오줌 좀 누야겠다."
이런 사소한 일도 몸소 이 늙은이가 해야 하는구나.

솔마람 152×224cm 울림터 | 18,500원

도를 찾아 떠난 고양이

마음이 · 행복해지는 · 선 이야기

정소년 권장도서로 선정되었습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여정을 다룬 책!
불교의 기본 가르침인 사성제, 팔정도, 육바라밀을 웃음과 지혜가 담긴 이야기와 아름다운 삽화에 담았습니다.

솔마람 양의 보현 지음 · 크리스티안 무 그림 | 일러스트 윤리 190×190cm 울림터 | 12,000원

내 친구 까까머리

이번 부처님 오신 날에는 가까운 절집을 찾아가 우리 사찰의 아름다움을 느껴 보는 건 어떨까요?

이책을 통하여 우리 절집의 아름다운 모습, 부처님 오신 날의 연등 행사, 그리고 절집 곳곳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에 대하여 새로운 눈으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 책은 불교의 역사와 문화를 딱딱하게 일깨워 주는 책이 아니다.

동자승 광덕이와 유지원생 민이의 만남과 우정을 이야기하는 따뜻한 책입니다. 그런 가운데 아이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절집(불교)의 아름다운 정신까지 자연스럽게 보고, 깨닫고, 느끼게 되는 감동적인 그림책입니다.

임정진 글, 윤정주 그림/260×275/양장/40쪽/8,500원
시공사

하루 108배, 내 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SBS 스페셜 0.2평의 기적, 절하는 사람들에서 다루어진 기적의 수행법

"죽는 날까지 건강한 삶을 누리고 싶다면, 고 통스러운 병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생활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108배를 시작해 보십시오!"

김철성지음/신국판(양장)/260쪽/값10,000원
아름미디어

자귀나무에 분홍 꽃 피면

한 생각 뒤집어진 뒤에 누린 삶... "그곳은 대체 어디입니까?"

경학과 율령의 조화를 이루어가며 불문의 즐거움을 누리고 폐기는 비구니 스님들의 이야기. 기록이 되지 않으면 전설이 되고 말일. 그러나 기록이 되면 역사가 되는 일.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 은둔

은둔하며 깨달음을 얻은 33인의 선녀들 이야기
거리에서 남자는 세상이다. 그러나 정작 우리를 인도하는 나침반과 손가락은 어디에 있는가?
남을 밝히고서 자신의 자취를 감추어버린 빛이기에, 대지의 만물을 기르는 데 스며들고서 자신은 사라져버린 비이기에, 자신에겐 추상화된 남에겐 혼종이 되었다. 이 시대의 마음의 스승들을 찾아서.....

글 김영숙 · 사진 허경민 212쪽 / A5 / 8,500원
오래된미래

바람 속 이야기

동학사 강원 비구니 스님들이 은근슬쩍 풀어놓는 마음자리와 출가 이야기

구법의 길을 향한 출가와 강원에서의 생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측불허의 에피소드들, 수행의 동반자가 된 도반 이야기와 출가 뒤에 남겨진 어머니에 대한 애뜻함, 은사스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 등이 비구니 스님들 특유의 감성으로 담백하고 풋풋하게 그려져 있다.

동학사 편집실/국판/240쪽/9,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옛 거울을 부수고 오나라 禪門正路

출간된 지 25년 만에 새롭게 만나는 성철 스님의 법어집, <선문정로>!

한국불교계의 문집 논쟁을 불러일으킨 성철 스님의 대표작, 『옛 거울을 부수고 오나라』.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 한국불교계는 문집(頓漸) 논쟁에 휩싸였다. 문집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은 저자가 1981년 출간한 <선문정로>로, 『문오점수(頓悟漸修)』에 대한 비판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

옛 거울을 부수고 오나라』 개정판에서는 현대인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문장 해석 등을 첨가했으며, 한자는 괄호 속에 넣었습니다. 또한 저자 성철 스님이 1983년부터 <선문정로>를 교재로 해인사에서 강설한 내용을 추가하여 이해를 도와줍니다. 원문 출처도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성철스님 지음/신국판/424쪽/10,000원
장경각

산사에서 만든 차

우리나라 산사의 차 문화를 소개한 실용서.

이 책은 저자가 3년에 걸쳐 우리나라 사계 속의 산사와 각기 다른 계절별로 스님들의 차 만들기 방법을 선별하여 소개하고 있다. 녹차와 꽃차, 잎차, 열매차 등 다양한 차들을 칼라 사진과 함께 실어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차 맛을 느끼는 것, 알아간다는 것은 수행이다. 차와 명상은, 같은 맛(선다일미)이란 뜻이다.

이정에 지음/4×6배판 양장/248쪽/33,000원
정리출판사